

영화 '천문 : 하늘에 묻는다' 세종역 한석규

“내 연기가 물이라면 최민식 형님은 불이죠”

“연기,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 나이 마흔 넘어서 깨달아 자연스러움에 대해 고민해요”



영화 '천문'에서 세종과 장영실 역을 연기하는 한석규(오른쪽)와 최민식.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2011) 때는 세종이 아버지(태종)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연기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세종이 어머니(원경왕후 민씨)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죠.”

한석규(55)가 오는 26일 개봉하는 영화 ‘천문:하늘을 묻는다’(허진호 감독)로 다시 한번 세종 역에 도전한 이유다. 세종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 23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그는 이런 답을 내놓았다.

“마흔 전까지는 제가 위인을 연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어요. 마흔을 넘어가니 관심이 저 자신에게 옮겨오면서 연기관도 달라졌죠.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는 연기가 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연기란 결국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던 중 만난 인물이 바로 이도(세종)입니다.”

한석규는 “제가 왜 연기를 하는지, 연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러면서 세종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했다. 세종의 모친 원경왕후는 이방원(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나중에 남평에 의해 친정이

말문을 당하는 등 불행을 겪게 된다. 세종을 바라보는 보는 시선과 해석이 달라진 만큼, 한석규의 연기 톤도 달라졌다.

“‘뿌리 깊은 나무’ 때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세종을 연기했는데, ‘천문’ 때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을 지닌 세종을 표현했죠.”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고, 장영실과 함께 조선의 농민을 위해 독자적인 천문의기를 만든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석규는 ‘쉬리’ 이후 20년 만에 최민식과 한 작품에서 만났다. 동국대 선후배인 두 사람은 한석규 표현을 빌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적하면 적하는’ 사이다.

“민식이 형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내게 연기란 죽어야 끝나는 공부’라고 말한 것을 봤는데, 그 말이 제게 쏙 들어왔죠. ‘아 나랑 같구나’ 하고 느꼈죠.”

한석규는 자신의 연기를 ‘물’, 장영실을 연기한 최민식 연기는 ‘불’로 비유했다. “민식이 형님은 활활 타는 불같은 사람이예요. 연기하기 전에 먼저 많이 태워야 합니다. 제 경우는 물처럼 모았다가



작작 뿌리는 스타일입니다.”

“천문’은 세종과 장영실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에 초점을 맞춘다. 한석규는 “장영실은 노비 출신인데도 관심이자 별, 천문 기기 이런 것들”이라며 “세종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니 세종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배인 친구와 호흡을 맞춘 이야기도 꺼냈다. ‘천문’에서 황희 정승으로 출연한 친구는 한석규와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최민식과는 연극 ‘에쿠우스’로 한 무대에 선 적이 있다. ‘에쿠우스’는 최민식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주연한 작품.

“우리 때는 친구 선생의 연기를 많이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의 연기는 다릅니다. 특유의 말투가 있죠. 이번 연기도 보면서 그분의 평생 화두가 ‘호흡’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연기자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호흡에 소리를 얹느냐가 특히 중요하죠. 그런 호흡을 친구 선생은 계속 연구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한석규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연기와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연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야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 나는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살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허허.”

레드벨벳, ‘사이코’로 음원차트 1위 휩쓸어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세계 42개 지역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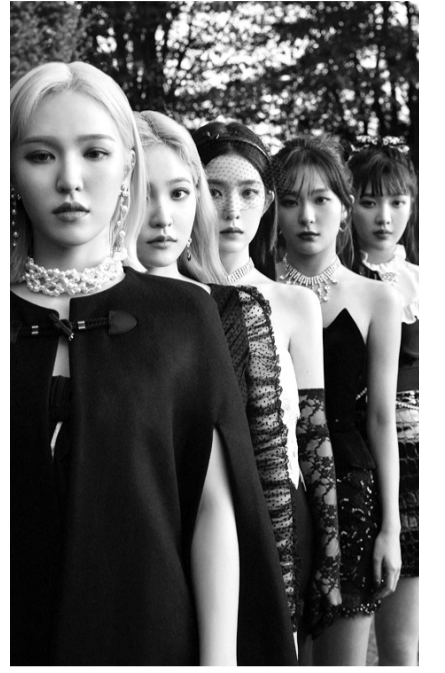
걸그룹 레드벨벳(사진)이 새 앨범 타이틀곡 ‘사이코’(Psycho)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레드벨벳이 23일 오후 6시 공개한 리패키지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The ReVe Festival) Finale 타이틀곡 ‘사이코’는 24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지니, 플로, 소리바다, 벅스, 올레뮤직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벅스에서는 또 다른 수록곡 ‘인 앤 아웃’(In&Out)이 2위를 차지했다.

‘사이코’는 벨나 보이지만 결국 서로뿐임을 인정하는 연인의 메시지를 담은 업템포 어반 팝 장르의 노래다.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는 레드벨벳이 올해 선보인 ‘더 리브 페스티벌’ 앨범 시리즈의 대미다. 앞서 올해 발표한 ‘데이 1’과 ‘데이 2’ 등 두 미니 앨범 수록곡 12곡에 신곡 4곡이 추가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이 한터차트, 예스24, 교보문고 등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일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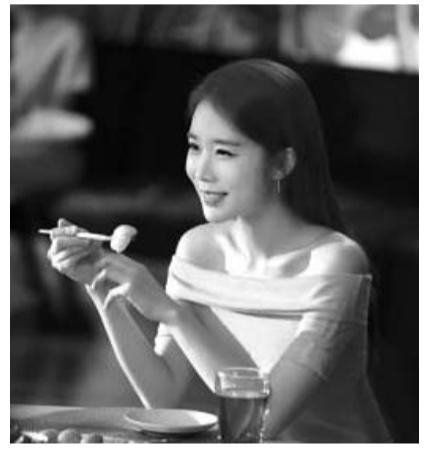
이 앨범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전 세계 42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나, 청각 장애 아동들 수술비 1억 기부

배우 유인나(사진)가 청각 장애 아동들의 수술비로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 사랑의 달팽이는 24일 “유인나가 최근 1억원을 기부했다”며 “지난 9월 3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나는 MBC TV 예능 ‘같이 편다’에서 청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하고, 구세군 자선냄비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히 선행 행보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꽃길만 걸어요(재)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10 1박 2일(재)	30 성탄특선영화 중언	10 성탄특선영화 넷잡
10	00 성탄특집 걸레성자 손정도	3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 SBS 뉴스
11	40 팔도밥상 스페셜		55 MBC 뉴스	00 크리스마스 특집 영재발굴단 스페셜 -트롯영재 정동원군 첫 콘서트
12	00 KBS 뉴스 10 성탄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	30 성탄기획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GFN 광주영여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공연
1	00 다큐 인사이트(재) 55 UHD 숨터(재)	45 99억의 여자(재)	45 복면가왕 스페셜	00 지식 통조림 1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스페셜
2	00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			30 SBS 뉴스 40 스토브리그 4회말 종료 하이라이트
3			35 MBC 뉴스 45 핑크피쉬	
4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UHD 숨터 40 팔도밥상 스페셜	05 성탄특집 코미디의 전당(재)		
5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상출시 펜스토랑(재)	35 성탄특집 시립발레 정기공연 호두까기인형	40 2019 SBS 가요대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차있는 인간들	55 SBS 8 뉴스
9	00 KBS 뉴스9			30 KBC 8 뉴스 5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살맛나는 세상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성탄 특선영화 배심원들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꾸러기 천사들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성탄특선영화-말레피센트	18: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5 필리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숨겨진 세계 라플란드 -북으로 가는 길 Norway〉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고백에서 하룻밤 3부 내 사랑 한옥집〉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결	17:00 EBS 뉴스	23:35 지식채널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40 성탄특선영화-퀴비디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음 11월 29일 丙申)

<p>36년생 뚱방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살펴봐. 48년생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0년생 서행하면 득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이로다. 72년생 위바람 여지는 충분하니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리라. 84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96년생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9, 70</p>	<p>30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42년생 섬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느니라. 54년생 대상의 선배에 신경을 써라. 66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제에 놓여 있다. 78년생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입장이다. 90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1, 20</p>
<p>37년생 남은 좋지한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겠다. 49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61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73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기에 용처가 나타나리라. 85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97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63, 48</p>	<p>31년생 당과 과거는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겠다. 43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55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67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79년생 새로운 일의 도모는 불길하니 현실에 충실하자. 91년생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7, 98</p>
<p>38년생 날아오를 수 있다. 50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62년생 완벽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74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다가 잡힐 것이다. 86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만 한다. 98년생 머지않아서 성사될 것이니 조조한이나 노파심일랑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2, 75</p>	<p>32년생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4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따른 차이가 크다. 56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8년생 행로를 좌우할 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80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92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6</p>
<p>39년생 경계해야 할 때다. 51년생 공을 들여라. 63년생 투철한 의지로써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75년생 이합집산 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87년생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절대로 숙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99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 19, 86</p>	<p>33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45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 57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 69년생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모양새이니라. 81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93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5, 76</p>
<p>40년생 도승이 보인다면 말하 조처해야 한다. 52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 받아들이는 도모할 수 있다. 64년생 도모한다 면 즉시 결실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76년생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88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0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 서 있다. 행운의 숫자 : 74, 23</p>	<p>34년생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보인다. 46년생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한 번 마음먹었다면 조처하는 것이 맞다. 70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으로 이끈다. 82년생 지난 날 언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94년생 시작되자마자 종결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3, 58</p>
<p>41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53년생 적절 맞아 떨어져서 쉽게 풀릴 것이다. 65년생 불안정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77년생 과욕하게 되면 절망이 따르는 법이다. 89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01년생 막상 임하면 마른 나무 꺾듯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25</p>	<p>35년생 안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4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59년생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71년생 큰 행보로써 수용하는 것이 맞다. 83년생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95년생 상당한 손실을 치르려서야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3, 88</p>